

AUTHOR 황성철

TITLE 칼빈 당시 제네바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IN 칼빈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과제

신복윤 명예총장 은퇴기념 논문집

(May, 2002):287-323

향이 이해의 편협성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잊지 팔아야 할 것이며, 또한 '창조-타락-구속'의 성경적 관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학적 사고를 항상 계시 의존적으로 전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칼빈은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총과 그에 대한 인간의 책임적인 반응을 내포한다는 점, 그리고 그 형상의 개신이 장차 도래할 구속의 때, 곧 영광의 상태에 이르러 완성된다는 점, 그래서 은혜의 상태 아래 있는 우리에게는 그 개신이 절진 적이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한 역동성을 지닌다는 점 등을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성시키며 내세에 대한 명상을 잊지 않도록 하는 실천적 의미를 제공한다.

물론 그의 신형상론을 살펴보는 중에 비판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에 대한 그의 분명한 주장을 결코 손상시키지는 아니한다. 예를 들면, 종종 주장의 일관성을 상실한 경우⁶⁰⁾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엽적 관점에서 가 아니라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려한다면 조화롭게 해석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로 사료된다. 결국 이러한 형상들은 역시 신적 계시에 대한 인간 이해의 한계성 때문에 연유된 것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60)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멸절되었다'고 진술하다가 또 다른 곳에서는 '잔존한다'고 말하는 것이라든지(cf., 각주 [34] 참조), 『기독교강요』에서는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dominium)을 신형상의 내용에서 배제하는 듯 하나(cf., *Inst.*, I.15.4). 그의 창세기 주석(1:26)에서는 오히려 신형상의 한 국면으로 인정하는 등등이다. 그러나 문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칼빈 자신의 전체적인 시각을 통해 바라 볼 때 조화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cf., 각주 [25] 참조).

칼빈 당시 제네바 교회¹⁾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황 성 철

<총신대학교 교수>

1. 서론

저명한 칼빈 학자인 필립 볼머(Philip Vollmer)가 그의 책제목을 『존 칼빈: 신학자, 설교자, 교육자, 정치가²⁾로 불린 데서 볼 수 있듯이 칼빈의 사역은 다양했다. 여러 방면에 걸친 그의 다양한 사역 가운데 신학자로서의 사역은 그 어떤 사역보다도 돋보이는 사역이었다. 개신교 종교개혁의 저명한 신학자로서 그의 명성을 드러내는 데는 그가 쓴 『기독교 강요³⁾라는 한 권의 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멜랑크톤(Philip Melanchthon)

1)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제네바 교회"라는 용어는 칼빈 당시 제네바 시 안에 있었던 성 빼에르(St. Pierre), 성 라 마들린(St. la Madeleine), 그리고 성 제르베(St. Gervais) 교회를 총괄한 것이다.

2) Philip Vollmer, *John Calvin: Theologian, Preacher, Educator, Statesman* (Philadelphia: The Heidelberg Press, 1909).

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by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Wm. B Eerdmans Co., 1962). 앞으로 강요에 관한 Volumn과 Page는 Beveridge 번역판을 참고하려고 한다.

은 칼빈을 가리켜 “그 신학자”(the theologian)⁴⁾라고까지 불렸다. 칼빈은 고대 아리스토크라트(Aristotle)이나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에 비견되는 불멸의 신학자였다.⁵⁾ 그러나 신학자로서의 그의 명성 못지 않게 그는 또한 유능한 목회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칼빈 자신은 실제로 자신이 이해하여 집대성한 신학을 공허한 관념의 세계에 붙들어 매 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실천의 장(場)인 교회에다가 적용하려고 했고, 그로부터 가시적인 실질적 효과들을 친히 보고 싶어했다. 그는 평생을 신학적 이론에 자신을 묶어두지 않고 그 이론을 실천에 옮기려고 심혈을 기울였던 실천적 목회자였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학문적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 “칼빈은 자신의 신학을 자신이 목회했던 제네바 교회에 얼마나 잘 적용을 했는가?” 그리고 “적용이 되었다면 그 적용의 효과는 어떠했는가?” 칼빈의 신학이론- 특별히 그의 교회론- 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제네바 교회를 복음의 기초 위에 바로 세우고 나아가서 제네바 교회가 역사상 개혁 교회의 한 모델로서 자리잡게 되었는지를 학문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오늘의 개혁주의 교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우선 칼빈의 교회론을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간략하게 다루려고 한다. 이어서 제네바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세워나가는 칼빈의 개혁적 노력을 서술하고, 마지막에 가서 제네바 교회의 정체성과 그 역할을 바로 인식하기 위하여 교회와 국가, 교회와 학교,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의 관계를 검토하려고 한다.

4) James I. Packer, “Calvin the Theologian,” in *John Calvin*, ed. G. E. Duffield (Appleford: the Sutton Courtenay Press, 1966), p. 149.

5)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VIII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69), p. 329.

2. 칼빈의 교회론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서로 굳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총수라고 칼빈은 이해했다.⁶⁾ 그러나 그는 참으로 적은 수의 사람이 수많은 군중 속에, 그리고 몇 알의 밀 알이 죽정이 더미에 묻혀있다고 말하고⁷⁾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밀하신 선택과 내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성된다고 생각했다.⁸⁾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밀하신 선택과 내적 부르심을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자기 백성을 아시며”(딤후 2:19),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그들에게 모두 인을 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은밀한 선택에 기초한 교회를 아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⁹⁾

칼빈은 선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속한 교회를 불가견교회로 그리고, 참 신자와 위신자를 다 포용하는 교회를 가견교회로 구분했다.¹⁰⁾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선택함을 받았는지 또는 벼름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그는 알 수 없다고 했다.¹¹⁾ 그는 가견교회와 불가견교회를 실제로 구별하는 일에 주저하면서 가견교회와 불가견교회는 두 교회가 아니고, 중첩하는 두 개의 동심원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칼빈에게 있어서 가견교회와 불가견교회는 두 교회의 대칭이 아니라, 오히려 가견교회는 불가견교회의 필수적이며 유용한 표현이요, 우리가 금생에서 머무는 한 가견교회가 우리의

6) Inst. IV. i. 7,8.

7) Inst. IV. i. 2.

8) *Ibid.*

9) *Ibid.*

10) Inst. IV. i. 7.

11) Inst. IV. xxiv. 8과 Lxvii. 8 참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¹²⁾

말씀 선포와 신자들의 성화를 위해 외적방편으로 두신¹³⁾ 가견교회에 대한 칼빈의 실제적 관심은 대단히 커졌다. 가견교회로서의 제네바 교회를 개혁교회로 세우기 위한 그의 주요한 이론적 설명은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로 부른 데에 있다. 그가 그렇게 부른 이유는 “생명에 이르는 길은 단지 우리가 교회의 모태에서 잉태되고 탄생하여 그의 젖을 먹고 자라며 죽을 육신의 몸을 벗고 천사처럼 되기까지 그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¹⁴⁾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무지하고 나태한데다가 변덕스럽기까지 한 속성이 있는 고로 우리의 마음에 신앙이 생겨난 후 그 신앙이 돈독해지는 데에는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한데”¹⁵⁾ 그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다.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하나의 학교였다. 실제로 칼빈은 『강요』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우리의 연약성은 우리가 어머니의 학교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 날까지 그의 학교의 학생인 것이다. 더우기 그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도 사죄와 구원을 얻을 수 없다.¹⁶⁾

교회는 칼빈에게 있어서 평생 졸업이 없는 학교였다. 이러한 주장은 그의 제네바 사역에서 실제화 되었다. 칼빈은 자신의 신학을 교회라는 학교를 통하여 교육이라는 방편으로 실천했다.

3. 제네바 교회의 정체성 확립 과정

1536년 칼빈이 목회자로 부임한 후 제네바 시는 본격적으로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¹⁷⁾ 하지만 아직은 그 신앙을 수용할만한 어떤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사실상 제네바 교회는 그 면에 있어서 백지상태나 다름없었다.¹⁸⁾ 포스터(Herbert D. Foster)는 그 당시 제네바 교회의 내적 상태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17) 화렐(Farel)의 권고에 따라서, 1536년 5월 21일 일요일, 제네바 시 소(小)위원회와 200인 위원회의 요청으로 제네바 시 총회가 공식적으로 종교 개혁을 채택하기 위하여 성 베드로 교회에 모였다. 당시의 위원회 기록(Vol. XXIX)은 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총회가 종파 트럼펫 소리에 맞춰서 개회되었으며, 초대 의장인 클로드 사브아(Claude Savoy)는 삶의 방식…… 즉, 미사가 철퇴(1535년 8월 10, 13일)된 이후의 삶의 방식과 같이, 지금도 항상 설교로 외쳐지고 있는 미사나 성상이나 우상, 또는 그 어떤 교황적 오용을 더 이상 욕망하지 않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의 방식에 관하여 소 위원회와 200인 위원회가 결의한 내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대한 어떤 분열됨이 없이, 우리는 모든 미사와 성상과 우상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버리기 원하며, 우리에게 선포된 것과 같이, 연합하여 의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신령한 교회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 원함을 공중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약하며 맹세한다고 선포하였다.’ Herbert D. Foster, “Geneva before Calvin(1537~1536). The Antecedents of A Puritan State,”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8(1903): 235.

18) 칼빈은 그의 고별 연설에서, 자신이 제네바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내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곳에는 거의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설교가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우상을 미워했으며, 그것을 불태울 기세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했습니다.” T. H. L. Parker, *John Calvin: A Biography* (London: J. M. Dent & Sons. Ltd., 1975), p. 153.

12) Inst. IV. i. 7.

13) Inst. IV. i. 10.

14) Inst. IV. i. 4.

15) Inst. IV. i. 1.

16) *Ibid.*

칼빈이 오기 전에 유기적 공동체으로서의 제네바 교회는 실상 존재했다고 할 수 없다. 어떤 공식적인 신조나 신앙적인 훈련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 교회는 재산권 관리나 교인 훈련이나 교인 심사 또는 목회자를 청빙하거나 해고할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못했다.¹⁹⁾

당시 제네바 시 당국은 교회를 조직체로 인정하지도, 인정할 수도 없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합법적이거나 명확하게 구축된 어떤 지위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²⁰⁾ 교회가 처한 이와 같은 상태를 파악한 칼빈은 신속하게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그것은 새로운 교회조직을 위하여 “규례”(Articles)와 “교리문답서”(Instruction) 그리고 “신앙고백서”(Confession)와 같은 교회조직에 필요한 기초문서들을 만드는 것이었다. 칼빈은 이 문서들을 통해 바라던 대로 제네바 교회 건설의 길을 개척한 것이다.

“규례”는 초대 교회와 일치하는 참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칼빈의 열정적인 시도의 산물이다. 이것은 국가의 일시적인 평가와는 별개로 그것 나름대로의 존재와 지위를 보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규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존경하는 신사 여러분. 교회는 항상 우리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고 되풀이하지 않고는 잘 정비되거나 바르게 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하신 분의 통치 아래서는, 헌신과 그에 대한 진실한 존경을 갖지 않고서는 누구도 감히 자신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를 흘 없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출교의 원칙이 필요한데, 그것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정중하게 복종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을 바르게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²¹⁾

19) Foster, "Geneva before Calvin," pp. 238~39.

20) Herbert D. Foster, "Calvin's Puritan State in Geneva," *Harvard Theological Review* 1(1908): 402.

21) John Calvin, "Articl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in

따라서 칼빈의 교회에서 자주 집례되는 성례와 신성모독으로부터 성례를 보호하려는 것은 교회가 정당하게 행사하는 권징의 중심 동기들이다. 이 점은 “규례”에서 후에 다음과 같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크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는 중요한 규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되신 분과 함께, 그리고 서로 한 몸, 한 영을 이루어 연합하도록 명하여지고 또 그러기 위해 시작된 이 성례식이 더럽혀지거나 타락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구세주는 그의 교회에 바르게 함과 출교의 원칙을 세우셨습니다.²²⁾

칼빈이 이처럼 권징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윤리적이거나 성경상의 율법적인²³⁾ 언약의 문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의미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인 백성들의 만남이라는 의미에 있었다.²⁴⁾ 이와 같은 그의 신념적 원칙은 근본적으로 성례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제네바 교회의 교인이 되는 기준은 성례의 신비에 참여하는 데 필수적 요건인 그 어떤 신성모독적인 허물이 없어야 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우리는 진실로 예수의 몸과 피, 그리고 그의 죽음과 삶과 그의 모든 선하심에 합당하게 여겨지며,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형제애적인 일치와 평화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한다.”²⁵⁾ 이것은 칼빈이 이해한 기독교인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trans. J. K. S. Reid, LCC: Vol. XXII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p. 48.

22) *Ibid.*, p. 50.

23) John T. McNeil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p. 138.

24)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동일한 입장 취하고 있다. “경건한 심령은 이 성례식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임에 대한 증거로서, 큰 확신과 기쁨을 바랄 수 있으며,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다.” Inst. IV. xviii. 2.

의 삶의 요체다.²⁶⁾

권정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참을성 있고 쉽게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지명되어서 시내의 각 처소로 흩어져 시 당국과 시민들의 삶을 살피는 일”²⁷⁾이 요구되었다. 지명된 그들은 회중 가운데 혹시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잘못을 목회자에게 알려서 목회자와 함께 그 사람을 찾아가 형제애적인 훈계를 함으로서 그를 바로잡아 주어야 했다. 칼빈은 “규례”에서 형제애적 훈계의 절차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²⁸⁾

만일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가운데 있다면, 교회는 그의 잘못이 교회에 알려지게 될 것임을 그에게 인지시켜 주어야 했고, 만일 여전히 바람직한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목회자는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알려서, 그 범죄자가 그의 완악함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취해 주어야 했다. 그리고 마지막 수단은 그가 회개의 증표를 보일 때까지,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도록 내 버려 두는 것이었다(고전 5:5을 참조하라). 비록 잘못된 행위가 인식되어서 고쳐진다 하더라도, 칼빈은 교회의 관용이 적용될 수 없는 더 큰 이유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자신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경우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보다 교황의 왕국을 더 우선 시하는 사람들로서, 정부당국자를 불러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해 보이도록 함으로서 모든 신자들이 한 교회로 연합될 수 있는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목회자들과 함께 각 사람들을 교리적으로 평가할 사람을 그들의 동료 중에서 정해야 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제네바에서 신성한 것으로 승인되어 받아

25) Calvin, “Articles,” p. 49.

26) McNeill, *The History*, p. 139.

27) *Ibid.*, p. 52.

28) “Articles,” pp. 51~3.

들여졌던 이 바로잡는 절차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칼빈은 불변의 이상향을 제네바에 만든 것이다. 구약의 은총 아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다.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막이 제네바 위에 임한 것이었다. 제네바 시민들은 신앙 고백에 서약할 것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받았다.

이러한 평신도 감시 제도는 비록 발달된 형태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감독법원의 역할을 했다.²⁹⁾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칼빈이 이 감시단의 역할을 국가가 아닌 교회가 맡도록 한 점이었다. 출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감시단들과 목회자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었다. 비록 그들은 국가에 의해서 임명되었지만, 그와 같은 문제는 정부의 관료가 아닌 영적 관료라고 이해될 수 있는 교회 지도자가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칼빈의 목표는 바로 교회를 통한 독립적 자치 정부에 있었다.³⁰⁾

“신앙고백”的 의무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인해 제네바 교회는 외적,³¹⁾ 내적³²⁾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다. 특별히 교회와 국

29) Williston Walker, *John Calvin: The Organizer of Reformed Protestantism* (New York: G. P. Putman's Sons, 1906), p. 190.

30) 당시에 자치 정부는 실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규례”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교회가 도저히 교정할 수 없는 사람이 생겨서 권정의 행사가 한계에 직면했을 때, 국가는 그 제재의 권한을 행사했다. 칼빈이 제안하는 주요점은 사적인 행위에 대한 교회의 권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칼빈이 일을 착수하기 전에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칼빈이 원했던 것은 국가가 통제를 행사하고 있었던 것을 교회가 자체의 독립적인 권정과 규율로 그것을 대체하는 데 있었다. *Ibid.*, p. 190 참조.

31) 외적으로, 제네바 교회는 두 가지 반대되는 신학적 입장에 부딪혔다. 하나는 뼈에르 까를리(Pierre Caroli)와 다른 하나는 두 명의 독일 재세례파였다. 까를리는 제네바 교회의 목회자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1537년 5월 14일, 로잔 종교회의가 까를리의 고소를 기각함으로서 일단락 되었다. 또한 두 명의 재세례파들(Anabaptists)은 1537년 3월, 의회 200인 위원회 앞에서 칼빈과 함께 이를

가의 내적 충돌로 인해 교회는 지도자들을 상실하는 아픔을 맛보게 되었다. 제네바 교회의 목회자들은 교회를 떠나야만 했다. 제네바에서의 첫 목회 기간동안 칼빈은 교회의 정체성을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리와 권징 그리고 예배를 정식화함으로서 자치적인 조직체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칼빈과 화렐이 제네바를 떠난 후, 제네바 정부는 앙트안느 마르쿠르(Antoine Marcourt)와 장 모랑(Jean Morand)을 복직시켰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의 정치적 그리고 도덕적 상황을 대처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³³⁾ 그래서 결국 1541년 9월 초, 교회는 칼빈의 귀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스트라스버그에서 3년간의 목회를 하다가 돌아온 칼빈은 제네바로 돌아온 바로 그 날, “제네바 교회의 교회법

간의 논쟁을 벌인 끝에 그 도시를 떠나도록 명령받음으로 이 문제 역시 일단락 되었다.

32) 내부 갈등은 기본적으로 제네바 교회가 국가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자체의 자주권을 갖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그 초점이었다. 그 논쟁은 1538년 2월 3일에 있은 선거에서 칼빈의 가장 철저한 반대자로 알려진 네 명의 의회지도자가 새로 선출됨으로서 시작되었다. 새 의회는 시작부터 “칼빈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명령한 복음만을 설교하고 그 설교에 정치를 혼합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개혁가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노골화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설교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네바 개혁가들은 여기에 쉽게 승복할 수 없었다. 또한 제네바 의회는 목회자와 상의조차 하지 않고, 교회의식의 많은 부분들을 폐지시켰다. 이와 같은 조처들로 인해, 칼빈이 그렇게 바랬던 교회의 부분적인 독립도 이루지 못했다. Walker, *John Calvin*, pp. 207~208.

33) 필립 볼머(Philip Vollmer)는 그 당시의 제네바 상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제네바는) 완전히 내팽겨쳐진 무기력한 무정부상태였다. 칼빈의 적들은 교사들에게 주의 만찬을 베른식으로 주관하라고 명령했으며, 이에 불복한 교사들은 쫓겨났고, 학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1539년 3월, 난봉꾼들은 도시 광장에 모여 칼빈의 지도 아래 서약했던 신앙고백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법은 무시되었고, 가장 추잡한 방탕꾼들이 판을 쳤다. John Calvin: Theologian, Preacher, Educator, Statesman (Philadelphia: The Heidelberg Press, 1909), p. 50.

령” (Ecclesiastical Ordinances)이라는 문서를 준비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교회의 전 삶을 법제화하도록 의도된 1541년 법령(Ordinances)은 목회적 기능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이 문서에 의하면 잘 정비된 교회는 목사와 교사, 장로, 그리고 집사의 네 직분자가 있는 교회였으며, 교회의 임무는 복음전파와 성례 시행, 그리고 신앙교육과 훈련, 곤고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이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직분자들의 임무가 서로 어느 정도 중복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각 임무는 각 직분에 고유하게 속하는 것이었다.³⁴⁾

목사³⁵⁾의 본질적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과 성례 집행 그리고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훈련하는 것이었다. 목사들은 성경 공부를 위해서 매주 모여야 했으며, 잘못에 대한 상호간의 비판을 조정하기 위해서 매 분기마다 만나야 했다.³⁶⁾ 이 분기 모임은 ‘존귀한 목사들의 모임(the Venerable Company)’이라고 불리웠는데, 이 모임은 제네바 시의 도덕상 한 저명한 장소에서 개최되었다.³⁷⁾

34) T. H. L. Parker, *John Calvin*, p. 82.

35) 목사는 목사들의 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의 승인에 의해서 그 직무에 임명되었다. 목사로 인정되고 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의회에 의해서였다. 그는 (목사로서) 충실히 하나님을 섬길 것과 교회법령을 옹호하고 그에 충성할 것과 군주와 도시의 명예를 고양할 것과 그리고 합당하게 계정된 제네바 법을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할 섬김이 결코 방해받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하에 서 준수할 것이라고 맹서했다. *Ibid.*

36) 좀 더 심각한 잘못, 예를 들면 직무태만과 같은 것은 그의 동료 목사들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평가되고, 이 평가가 만일 의회에 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그것이 입증된다면 의회가 그를 사임시켰다. 의회 문서에는 목회자들이 국법에 복종하고, “마지막 징계는 군주에게 맡겨지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법령이 후에 수정되었다. *Ibid.*, pp. 82~3.

37) McNeill, *The History*, p. 162.

교회를 섬기기 위한 실질적인 세부 사항이 결정되었다. 주일마다, 세 개의 교구 교회인, 성 빼에르(Saint Pierre), 성 라 마들린(la Madeleine), 그리고 성 제르베(Saint Gervais)에서 새벽과 9시에 각각 설교가 행해졌다. 성 빼에르 교회와 성 게르바이스 교회에서는 3시 설교가 하나 더 있었다. 어린이 교리문답 교실은 세 교회에서 똑같이 정오에 열렸으며,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세 교구에서 또 한 차례 설교가 행해졌다.³⁸⁾

교사들은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을 맡았으며, 집사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관장했다. 직분자들 가운데서 가장 주목할만한 혁신적인 직분은 장로였다.

장로들은 평신도로서 권징의 책임을 맡았다. 그들은 12인으로 구성되었고 모두 의회에서 선출되었다.³⁹⁾ 장로들과 목회자들은 권징을 책임질 감독법원을 구성했다. 그 구성에서 평신도의 수가 목회자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의장은 정부 당국자가 맡았다. 그러나, 감독법원은 교회 법정이지 시의 법정은 아니었다.⁴⁰⁾ 그래서 감독법원의 재판은 집행을 행하기보다는 권고적이었다.⁴¹⁾ 영적인 검

38) 의회는 예배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도록 당초의 계획을 변경시켰는데, 그것은 아마도 목회자가 부족할 경우, 동일한 목회자가 한 번 이상의 예배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되어진다. 제네바 교회의 사역은 세 명의 비서와 다섯 명의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가능한 한 교구의 경계가 존중되어, 성 제르베와 라 마들린 교회는 현재의 경계를 유지하고, 새 교구인 성 빼에르 교회는 이전에 성 제르맹(Saint Germain), 성 크로스(Saint Cross), 노트르담 라느브(notre Dame-la-neuve), 그리고 성 레제(Saint Legier)에 속한 교구를 아우르도록 했다. T. H. L. Parker, *John Calvin*, p. 83.

39) 소의회에서 2인, 200인 의회에서 66명이 선출된다. 몇몇은 각 도시에서 선출된다.

40) T. H. L. Parker, *John Calvin*, p. 83.

41) Georgia Harkness, *John Calvin, The Man and His Ethics* (New York: Henry Holt and Co., 1931), p. 25.

을 사용하는 테에는 한계가 있었다. 시의 형벌은 의회가 담당하였다.⁴²⁾ 그러나 의회가 감독법원의 파문의 권리를 승인해 준 것은 1555년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승리 이후였다.⁴³⁾ 이 승리는 교회가 고도의 자치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애썼던 칼빈의 오랜 투쟁에 광명을 던져주었다. 이것은 칼빈이 1537년의 “규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발달된 감독법원의 형태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구별되는 진전을

42) 칼빈은 1553년 11월 26일 쥐리히(Zurich)의 목회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 “감독법원이 세워졌고, 여기서 도덕적인 규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판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질책하는 것 뿐입니다. 법원이 행하는 궁극적인 징벌은 파문입니다.” John Calvin, “Letter CCCXXXV. – To the Pastors and Doctors of the Church of Zurich,” in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ed. and trans.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Vol. 5, Letters, Part 2, p. 443.

43) 교회가 파문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소의회는 의회가 간언하는 것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필사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칼빈 역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었다. 칼빈은 『강요』(IV. xii. 4~5)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가 드러난 간음자와 음행자, 절도와 강도, 거역자와 거짓 맹세자, 거짓 증거자와 그 밖의 유사한 무리와 경한 죄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도 하나님과 그 심판을 멸시하는) 오만불손한 자들을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 교회가 이런 시정책과 출교를 행사하는 데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 둘째, 선한 사람들이 그 사악한 자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 셋째,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로 돌아켜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감독법원이 출교를 포함해서 모든 영적인 힘의 행사로 범 범자들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도록 했다. 그 권한을 다 행사한 후에, 감독법원은 교회의 모든 치유책의 한계를 넘어선 불복종의 사람들을 시의 치안 판사에게 넘겨 주었다. 워커는 “그러한 젊은 칼빈이 그토록 소중히 여긴 교회의 독립을 절름발이로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Walker, *John Calvin*, p. 273.

이루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장로교 형태의 교회정치를 배태시킨 걸음이었다.

참된 교회를 구성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칼빈은 설교와 교육 그리고 그 다음으로 권정을 중시했다. 권정은 제네바 교회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다. 엄격히 말하면, 권정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는 것을 실제적이고 효과적이게 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 권정이었다.⁴⁴⁾

기대했던 대로, 예식서(liturgy)와 교회의 종교 교육에 관한 개혁은 어려움 없이 채택되었다. 1542년에 칼빈은 ‘교회의 기도와 찬송 형식’이라는 제목으로 새 예식 편찬물을 발행했는데, 이것은 스트라스버그에서 사용했던 것이었다.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1542년에 그는 두 번째 교리문답을 썼다.

제네바 교회의 역사는 1547년과 1558년 사이에 단지 몇 차례의 중요한 투쟁만을 기록에 남기고 있다.⁴⁵⁾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데 그 반대의 증거들이 과장되지는 말아야 한다. 그의 두 번째 목회 기간동안, 칼빈은 1540년 초기 세운 대부분의 제도를 완전히 관장했다. 그러한 제도들로서는, 존귀한 목사들의 모임(the Venerable Company of pastors), 주일 정오 교리문답 학교(the Sunday noon catechism schools), 그리고 감독법원(the Consistory)과 함께, 목사들의 금요 모임 또는 성경 공부(the Friday Congregations or Scripture exercises for pastors) 등이 있었다.

44) T. H. L. Parker, *John Calvin* p. 84.

45) 중요한 투쟁은 다음 사람들과 연관된 신학적 논쟁을 말한다. 즉, 솔로몬 시의 영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세바스천 카스텔리오(Sebastian Castellio), 칼빈의 예정론을 공격했던 제롬 볼세(Jerome Bolsec), 그리고 고대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반박했던 미셸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 등이었다.

1540년 후반을 거쳐 1560년 초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투쟁에서, 제네바 교회는 점차적으로 제도적 성숙을 이루어갔다. 매일의 제네바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제네바 교회는 그 정체성을 점진적으로 확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갔다.

간단히 정리하면, 제네바 교회사역에 있어서 칼빈이 의도했던 목적은 간략히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신약 교회의 본을 따라서 잘 정비된 개혁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모든 제네바 시민들의 매일의 삶에 순수한 기독교 교리를 심는 것이었다. 칼빈은 끊임없이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로서, 각자의 정체성, 즉, 자신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바르게 깨닫도록 교육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목적을 적절히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설교와 예배, 교리문답과 권정을 사용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그것을 성실히 적용하며 살도록 훈련받는 장소였다. 칼빈은 제네바 교회를 “개혁 학교(reform school)”로 간주하고 있었음에 틀림 없다. 흠플(Harro Hopfl)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교회의 중요한 임무는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명확히 ‘학교’로 기술될 수도 있을 것이다. 때때로 칼빈 역시 그렇게 언급했다.⁴⁶⁾ 더욱이, 몇 개의 그의 지도자 개념(master-conception)은 명백히 교육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두드러지는 것으로는 “훈육(disciplina)” 그 자체로, 그 첫째 의미가 바로 ‘가르침(teaching)’과 ‘지도(instruction)’와 ‘훈련(training)’이며, 또한 권정(discipline)의 면에서 ‘징계징벌’과 ‘매(친숙한 교육 보조물)’의 의미이다.⁴⁷⁾

46) Inst. IV. I. 4 : “우리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평생 배우는 자로서 우리 의 전 삶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학교를 떠날 수 없다”.

역사적 제네바 교회는 하나의 교육자(an educator)로서, 또한 하나님의 훈육자(a discipliner)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a guardian)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

4. 제네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제네바에서만큼 교회와 국가가 서로 간에 영향을 크게 주고받은 곳은 역사상 지금까지 없었다.⁴⁸⁾ 그러나 그들간의 그와 같은 상호 협력 관계에도 불구하고, 두 영역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었다.⁴⁹⁾ 칼빈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으로, 그리고 국가는 세속 정부로 구분했다. 비록 두 영역은 서로 크게 분리되어 있지만, 둘은 모두 하나님에게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 간의 섬김을 통해서 관련을 맺어야 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이 두 영역의 목적은 다음 내용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 가르친 바와 같이 이러한 통치는 그리스도의 영적이고 내적인 나라와는 다르므로 우리는 이 둘이 서로 상반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영적 통치는 지상에 있는 우리 안에 하늘 나라를 이미 시작하게 만들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덫없는 생명 속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축복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47) Harro Hopfl, *The Christian Polity of John Calv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 203.

48) William A. Mueller, *Church and State in Luther and Calvin, A Comparative Study* (Nashville: Broadman Press, 1954), p. 125.

49) 맥네일(McNeill)은 “16세기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의 긴밀한 연합은 단지 소수에 의해서만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 두 영역의 구분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교회와 국가의 구분이 아니라, 동일한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적 정부와 세속적 정부로 나뉘지는 그러한 구분이었다.” *The History*, pp. 184~85.

한다. 그러나 국가 통치의 지정된 목적은,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위치를 보호하며, 우리의 생활을 인간 사회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 정의와 일치하도록 이끌며,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하여 전체적인 평화와 평온을 증진케 하는 것이다.⁵⁰⁾

이 진술은 집권자들의 의무에 대한 칼빈의 생각을 포괄적으로 집약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대해서 정확하고도 분명한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칼빈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통치와 교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율법의 두 계명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진지한 고찰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⁵¹⁾ 즉 정부는 율법의 첫 계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계명을 강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율법의 첫 계명과 관련해서, 두 가지였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순전한 복음적 설교가 있는 공적 예배가 드려지도록 돋는 것이었다. 칼빈이 “하나님에 대한 외적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다름 아닌 우상 폐지였다.『강요』의 다른 구절에서, 칼빈은 생활의 복지증진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스르는 어떤 우상이나 신성모독, 그리고 진리에 반하는 어떤 중상모략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이 사람들 사이에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⁵²⁾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정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시 정부의 권력이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교회의 대의명분을 더욱 촉진시켜 주어야 했다. 심지어는 참된 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교회를 고무하고 지원해 주어야

50) Inst. IV. xx. 2.

51) Mueller, *Church and State*, p. 128.

52) Inst. IV. xx. 3.

할 의무까지 주어졌다. 시 정부는 순수 복음을 전하는 참된 교회라고 불리울 자격이 있는 그런 교회를 장려해야 했다.⁵³⁾

집권자는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들로서, “시민의 순결과 겸허, 그리고 신의와 온화함을 지키고 응호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명령받는 수호자인 동시에 응호자”⁵⁴⁾였다. 다른 한편 부정적으로 말하면, 집권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을 행사하는 것은 정의 실현을 위하여 공동의 선에 위배되는 범법자들을 엄격하고 바르게 징계하는 것이었다.⁵⁵⁾

칼빈은 [디모데전서 2:2 주석]에서, “만일 집권자가 사악한 자들의 무례함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모든 장소는 강도와 살인자로 가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⁵⁶⁾ 힘과 징계라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악이 제어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유의지와 가공할 만한 악의 잔인성으로 인해서 쉽게 부패할 것으로 인식한 칼빈은 타락으로 인해 부패된 인간에게는 정부에 의한 법과 질서의 제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았다. 비록 정부의 권력이 인간의 자유를 절제시키고, 열정을 제어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에 의해서 집행되는 정의는 바로 인간의 사악함을 보게 하는 거울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의 징표이다. 그것은 인간이 무정부적이고 도덕적 혼란 속에 내던져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세속 정부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에 기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동시에 인류를 보존하고 조화로운 사회의 삶을 가능하게 해야 할 실제적인 목적에 기여해야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칼빈은 국가를 “정치문화(Kulturstaat)”의 개념, 즉, “교화시키는 기관”(civilizing agency)으

로 간주했다.⁵⁷⁾ 즉, 하나님 안에서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 조직체로 본 것이다.

두 권력을 구분하는 것은 칼빈의 전체적인 사상구조에 있어서 그 기초였다. 칼빈이 생각했던 바에 의하면 교회는 계시를 해석하고 영적인 판결을 내리고, 국가는 세속적인 문제와 교회의 보호를 그 권한으로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각각의 권한이 분명하게 한정된 영역을 갖고 있었지만, 집권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교회와 국가가 상호 보조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칼빈은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국가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하기 위해 과감하게 싸웠다.⁵⁸⁾ 존귀한 목사들의 모임(the Venerable Company)은 교회의 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세속 권력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했다. 그러나 감독법원의 인적 구성이 과반수는 국가로부터, 또 다른 과반수는 교회로부터 추천되어서 조직되었기 때문에, 이 두 권력의 조화는 항상 쉽게 이뤄지지 못했다.⁵⁹⁾ 겨우 1555년 이후에야 칼빈은 이 두 권력의 조화가 이루어진 제네바 시의 지도자가 되었고, 교회와 국가(Church-State)에 명실상부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⁶⁰⁾ 캠슐트(Kampschulte)는 칼

57) Mueller, *Church and State*, p. 142.

58) 프랑스와 벤델(Francois Wendel)은 교회와 국가가 분쟁하는 이유를 다음 두 가지로 분석했다. “만일 그 후에 결국 매우 잣은 갈등이 있었다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교리의 설계가 불완전했기 때문이거나, 혹은 감독법원이 진짜 심각한 결점에 대한 경계를 제한하는 대신, 점점 더 종교 재판의 판행을 땀으로 인해, 집권자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Calvin*, p. 79.

59) 감독법원의 목회자 수는 1560년에 18인에 달했다. 반면 장로의 수는 여전히 12인에 불과했다. 이렇게 해서 감독법원은 점차적으로 더욱 실제적인 교회의 법정이 되어갔다. McNeill, *The History*, p. 188.

60) 여기서 진짜 문제는 칼빈이 교회를 국가의 우위에 두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종종, “신정정치(theocracy),” “성직 계급 정치(hierocracy),”

53) Wilhel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trans. Harold Knigh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p. 234.

54) Inst. IV. xx. 9.

55) *Ibid.*

56) Comm. 1Tim. 2:2.

빈의 교회와 제네바 정부사이의 상호관계의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요약했다.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교회가 국가에 종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실질적인 지도자였다. 교회는 국가에 외형적인 존경과 자격을 부여하고 형식상의 권력을 위탁했다. 그러나 그 복종에 대신하기 위해 교회는 자신의 본질을 확고히 했다. 국가의 생명에 인격과 특성과 방침과 내용, 그리고 목표를 부여하는 것은 교회였다.⁶¹⁾

영적이고 세속적인 권리의 이중성은 짧은 기간 동안 일치된 형태로 변해갔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의 몸으로 불가분의 관계였다. 모든 핵심적인 권력은 국가에 속했다. 그리고 교회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⁶²⁾

5. 제네바 교회와 학교와의 관계

칼빈의 사상 체계 안에서 교회와 학교는 상호 의존적이었다. 교회는 학교와의 관계에서 학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결정해 주었고, 말씀과 성례의 목회를 통해서 그 목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수단들

“성직 정치(clerocracy),” “성경적 정치(bibliocracy),” “그리스도 정치(christocracy)”라는 개념들이 거론되어서 적용된다. 맥네일(McNeill)은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칼빈의 교회국가는 성직자 계급 정치(hierocratic)는 아니었다. 칼빈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집권자가 그들의 영역을 감당해주기를 바랬다”고 지적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제네바와 관련해서, 말하기를 “확실히 그 제도는 세속과 교회의 권위를 똑같이 하나님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효과적으로 임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의미에서 “신정정치(theocracy)”였다고 했다. *The History*, p. 185.

61) Mueller, *Church and State*, p. 126.

62) R. N. Carew Hunt, “Calvin’s Theory of Church and State,” *The Church Quarterly Review* 107(1929), p. 71.

을 제공해 주었다. 그 반면에 학교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먼저 교회에는 자격을 갖춘 목회자와 교사, 그리고 실력있는 평신도를 공급해 주었고, 나아가서 국가에는 그리스도인 집권자와 기독교 시민을 양성해 주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들은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특별히 교사와 목사는 같은 사명을 공유한 협력자들이었다.⁶³⁾

1536년 칼빈이 제네바에 오기 전, 당시 학교 상황은 말이 아니었다.⁶⁴⁾ 칼빈이 주도하는 개혁을 공식적으로 수용한(1536년 5월) 제네바 시민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학교를 새롭게 개교하는 데 모두 찬성했다.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무료였으며, 중세 삼학(문법, 논리학, 수사학)에 근거한 초등, 중등 교육이 제공되었다.⁶⁵⁾

63) Robert White, “The School in Calvin’s Thought and Practic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12(1969): 23.

64) 13세기부터 학교는 몇 개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거기다가 학교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마저 매우 빈약했다. 그러나 15세기에 들어와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막 출현하기 시작한 르네상스- 인본주의를 고려해 볼 때 쉽게 이해가 된다). 1428년 시의회는 공립 학교를 세웠다. 여기서는 삼학(문법, 논리학, 수사학)과 사학(산술, 음악, 기하학, 천문학)을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그것은 매우 장엄한 시작이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교육에 대한 흥미의 부족으로 인해 그 좋은 의도는 서서히 사라져 갔으며 급기야 학교는 1세기 후에 문을 닫고 말았다. J. L. van der Walt, “The School that Calvin Established in 1559,” in *Our Reformational Tradition, A Rich Heritage and Lasting Vocation*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1984), p. 305.

65) 위원회의 기록(Vol. XXIX, fol. 112)에 의하면 1536년 5월 21일(일요일)에 다음과 같은 규약이 발표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학교를 위해 유능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충분한 봉급을 지급할 것에 동의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거기서 교구목사와 교사들이 되도록 한다는 것에 인준했다.” Foster, “Geneva Before Calvin,” p. 235.

이 학교는 리브 중등학교(the College de Rive)⁶⁶⁾라고 불리웠다. 학교의 운영 자금은 보잘 것 없었으며, 교육 시설은 매우 열악했다. 거기다가 교장 역시 유능한 인물이 아니었다. 공립학교로서 이 학교는 종교개혁 이전에 변성했던 사립학교들과는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⁶⁷⁾

칼빈이 제네바에서 교육 활동을 시작했을 때, 리브 중등학교(the College de Rive)는 그가 제안한 도시의 재조직에 일익을 담당하는 조직의 하나로 간주되었다.⁶⁸⁾ 1537년 1월에, 칼빈은 제네바의 교회 조직을 위한 “규례”를 의회에 제출했으며, 그 이듬해인 1538년 1월에는, 그의 옛 스승인 코르디에(Cordier)와 쇠티에르(Saunier)와 함께 이미 존재해 있던 패럴(Farel)의 김나지움(gymnasium)으로 재조직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했다.⁶⁹⁾ 하지만 시기상조였다. 그 이유는 자유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1538년에 그는 제네바에서 추방당하여 스트라스버그로 갔으며, 그곳에서 프랑스 난민 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면서, 존 스텀(John Sturm)⁷⁰⁾

66) 그 대학은 공식적으로 1536년 5월 21일에 쇠티에르(Antoine Saunier)를 학장으로 임명했다. 사우니어는 몇 명의 보조 교사들의 도움으로 체계적인 문법교육을 시작했다. 커리큘럼은 중세 삼학에 기초했지만, 그 정신이 변질되어서 불어가 라틴어와 기초 그리스어, 그리고 히브리어를 대신했다. 교과과정은 필수적인 기초과목들이었다. 읽기와 쓰기는 제네바에 산재해 있는 많은 소규모 학교들에서 가르쳐졌지만, 이곳 선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학생들을 대학에 데리고 가야했다. Robert Henderson, *The Teaching Office in the Reformed Tradition, A History of the Doctoral Minist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2), p. 43.

67) White, "The School," p. 6.

68) John Bratt, "John Calvin and the Genevan Schools," *Christian Home and School* 37(1959): 12.

69) J. Chr. Coetzee, "Calvin and the School," in *John Calvin: Contemporary Prophet*, ed. Jacob T. Hoogstra (Grand Rapids: Wm. Eerdmans, 1959), p. 21.

70) 1538년에 발간된 *De literarum ludis reste aperiendis*란 책에서, 스텀

의 학교에서 가치 있는 교육경험을 얻었다. 칼빈이 결국 제네바에서 실행에 옮겼던 교육 개혁은 실제로 이곳에서 3년의 과정을 걸쳐서 마련된 것이었다.

1541년 칼빈은 교육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제네바로 돌아왔다. “무지는 미신의 어머니이며, 문화는 종교와 자유의 시녀”라고 확신한 그는 제네바 시민을 개화시키고 교회를 간구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믿었다.⁷¹⁾ 이러한 신념 하에 칼빈은 제네바의 교육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⁷²⁾ 교회에 대한 칼빈의 개인적인 관여도 학교와 종합대학(단과대학과 아카데미) 설립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가 학교에 그리스도인 교사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었다.⁷³⁾

칼빈은 스트라스버그에서 돌아오자마자 교육개혁을 위한 단호한 조치들을 단행했다. 제네바의 초등학교의 수를 줄이고,⁷⁴⁾ 교사들의 전문 능력을 시험하고, 라틴어를 배우는데 너무 어린 아이들은 들어

(Sturm)은 세 단계의 교육 체계를 제안했다. 알파벳을 배우는 6세 이하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과, 6세 이상의 소년들을 위한 9년 과정인 김나지움(Gymnasium), 그리고 김나지움을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5년 과정인 Hochschule 등 세 종류의 학교였다. 한편으로는 윤리학과 종교가 강조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라틴어와 그리스어가 강조되었다. 김나지움은 공식적으로 1538년 9월 30일에 문을 열었다. 그 학교는 유능한 교사들로 인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무작위 교육방법(hit-or-miss)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 심지어는 대학원생들조차 많은 흥미를 가지고 신학과 법학, 의학, 수학, 철학, 언어학, 시, 음악학 등의 강의를 받았다. 존 스텀은 1581년까지 그곳의 교구목사로 봉사했다. Hastings Bell, *Martin Bucer*, 2nd edition (New York: Russell & Russell, 1971), p. 228.

71) van der Walt, "The School," p. 306.

72) Bratt, "John Calvin," p. 12.

73) van der Walt, "The School," p. 306.

74) 학교들은 네 곳으로 줄어들었고, 각각 네 교회의 교구로 분산되었다[성 게르마인(St. Germain)이 1541년의 세 교구에 추가되었다]. 이 학교들은 주로 목회자들에 의해 지도되었다. McNeill, *The History*, pp. 192~93.

오지 못하게 했다. 대신에 그런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대 학교(Great School)”에 참석해서 “보통 교육(some common instruction)”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⁷⁵⁾ 칼빈의 취했던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제네바시 안에 학교를 집중시키는 것인 듯 보였다. 교육의 열렬한 신봉자로서 그는 제네바 의회에 다음과 같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 왜냐하면 학교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이 제도 보다 더 많은 빛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과 참 종교에 대해 특별히 더 많은 것을 교육받을 수 있다.⁷⁶⁾

“1541년 교회 법령”은 고등 학교와 훗날의 대학교를 세울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해주었다.⁷⁷⁾ 그러나 그의 이와 같은 이상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실현될 수 있었다. 1557년 10월, 칼빈은 스트라스버그를 방문하여 스텀의 아카데미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이전에 보았던 것과는 달리 눈부시게 성장한 학교를 목격할 수 있었다. 스트라스버그의 방문을 마치고 제네바로 돌아온 칼빈은 이미 제안했던 제네바 아카데미의 설립을 위한 부지 선택에 실질적인 조치들을 강구하였다.⁷⁸⁾ 스트라스버그에서 스텀의 성공을 보고 난 후, 그는 제네바에 그러한 노력을 시작하는 데 더욱 의욕을 쏟았다. 아카데미의 설립에 대해 쉬를르 보르죠(Charles Borgeaud)는 이

75) White, “The School,” p. 8.

76) van der Walt, “The School,” p. 307.

77) 1541년 법령은 “교회가 자녀들에게 외면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의 자손들을 양육시킬 필요성”과 “시민 정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목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78) 비서인 클라우드 로제(Claude Roset)은 책수에 들어간 동기와 그 때의 어려움에 대해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다. “시장들과 사람들의 열정(bonne volonté et affection)이 그들의 기난을 넘어섰다.” McNeill, *The History*, p. 193.

렇게 말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완수했다: 그는 한 번에 교회와 학교 그리고 요새도시를 세움으로서 제네바의 미래를 공고히 했다. 그것은 현대에 있어서 최초의 자유의 요새였다.⁷⁹⁾

칼빈은 교회를 학교 개혁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제네바 교회가 학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실제로는 학교 영역 밖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었다.⁸⁰⁾ 남아프리카의 칼빈 철학자인 반 더 왈트(van der Walt)는 그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역사적 정황에서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각기 다른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먼저 당국자들은 학교를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서로를 나뉘어 있었고, 시민들(동시에 교회 회중들도 마찬가지로)은 기난하고, 문맹이었으며, 그 자신들이 학교를 세워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교회는 목회자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분명하게 강한 위기감을 느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교회와 신학자들은 교회 보호 아래 학교를 세워야 할 의무를 느꼈다. 그런 교회 학교들은 단지 부모들이 이것과 관련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아래서만 용인되는 것이었다. ‘교회 학교’라는 개념은 하나의 독립된 사회 구조로서, 교육과 학교 분야를 넘어서고 있음을 이미 암시하고 있었다.⁸¹⁾

이 진술은 교회와 학교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회 석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둘의 관계와 관련한 칼빈의 전체 의도는, 교회와 학교가 두 개의 별개의 사회 제도로서, 상호 의존적인 결합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칼빈이 추진하는 학교의 목적은 제네바 교회의 목회자들을 훈련

79) *Ibid*, p. 196.

80) van der Walt, “The School,” p. 311.

81) *Ibid*.

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학교는 협소한 교회적 목적에 봉사해야 했다. 교회와 학교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와 학교의 구조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 두 사회적 조직은 서로를 각각 존재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이상적으로는 서로를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 자신의 재량권 안에서 독립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⁸²⁾

결론적으로, 교회와 학교는 칼빈에게 있어서 두 개의 중심을 이루는 개혁작업의 축이었다. 교회는 시간적, 역사적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에 우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학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지는 않았다.⁸³⁾

6. 제네바 교회와 학교와의 관계

교회와 가정은 별개의 교육 환경으로 상호 의존적인 접촉지점을 가지면서도,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했다. 교회는 신자들인 동시에 한 가족의 어머니와 아버지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두 기관은 교육적 기능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신자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칼빈은 부모를 첫 번째 혹은 제 1의 교육자로 간주했다.⁸⁴⁾ 칼빈이 부모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는 자녀들이 세례식에 나올 때 부모가 필히 함께 해야만 한다는 서약 속에 잘 반영되어 있다. “세례주관 서식(Form of Administering Baptism)”이라 불리는 문서에서, 칼빈은 자녀들이 신앙의 가정의

82) White, “The School,” pp. 23~4.

83) van der Walt, “The School,” p. 334.

84) *Ibid*, p. 319.

한 구성원이고, 은총의 언약의 수혜자들이라는 성경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의 유산자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⁸⁵⁾고 언급하고서, 이어서 예수가 어린이들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에게 속했다고 선포하시고, 그들을 안수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교회에서 배제시키지 말아야 한다”⁸⁶⁾고 분명하게 가르쳤다. 이 규정에 의해서 어린이들은 교회로 영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언약은 자녀들이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부모들이 해야 하는 맹세이다.

목적은 이 어린이를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 연령(14세)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받아들여진 교리를 가르칠 것을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신앙고백 안에서 요약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⁸⁷⁾

부모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해야 했다.

이 모든 교리와 대체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삼가 가르칠 것을 약속합니다. 이와 같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것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것을 자녀에게 훈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주신 훈계를 따라 살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그 자신과 자신의 욕망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교화시키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여 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⁸⁸⁾

85) John Calvin, “Form of Administering Baptism,” in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ed. and trans.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Vol. 2, Tracts, Part 2, p. 115.

86) *Ibid*, pp. 115~16.

87) *Ibid*, p. 116.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할 책임은 기독교인 부모들의 의무이자 특권이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양육과 훈계로 그들의 자녀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야 할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칼빈이 교회와 가정에서 어린이들의 위치를 계약적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어린이들은 이미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주님의 언약을 통한 영원한 계약(창 17:1~14)에 참여한 자들”⁸⁹⁾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언약이라는 개념에 따라서,”⁹⁰⁾ “상속된 권리에 의해서,”⁹¹⁾ “언약에 의하여”⁹²⁾라는 것이다. 사실, 그는 신자의 자녀들이 “아직 어머니 태에 있을 때, 그들이 살아있는 숨을 쉬기 전에, 이미 영원한 생명의 언약에 포함되었다”⁹³⁾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의 자비로 그들에게 그러한 특권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계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에 반대하는 재세례파로 인해 오히려 더 주의 깊게 이 개념을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⁹⁴⁾ 그는 자신의 입장을 한층 더 강화한 증거로서, 언약의 은총이 율법 아래에서보다 복음 아래에서

더 크다는 전제를 인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대교의 어린이들이 포함될 수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 어린이들이 배제될 것인지에 관해서 궁금해했다.⁹⁵⁾ 칼빈은 그리스도가 어린이들을 영접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또한 다른 성경적 근거⁹⁶⁾를 제시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언약이었다. 따라서, 언약의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존 녹스(John Knox)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언급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신자들의 자녀, 즉 첫 후손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수천 세대까지 확장된다. ……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배교자라 할지라도, 신령하고 경건한 조상들의 후손이 교회의 몸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결코 의심스런 일이 아니다. …… 각 사람이 세례를 받았음이 인정되는 것은, 단지 그들의 부모들과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의한 것이다.⁹⁷⁾

칼빈은 주장하기를 언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성실함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면서, 어느 자녀가 “교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간주되는”⁹⁸⁾ 부모에 의해서 인도되어 나오지 않으면, 언약의 정표는 부여될 수 없다고 했다. 성례가 하나님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영원한 언약은 현재의 관계에 의해서 강제되어야 한다고 그는 믿었다.

칼빈이 만일 언약 그 자체에 아주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언약의 정표를 부여하는 것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

88) *Ibid.*, p. 117.
89) John Calvin, *Instruction in Faith*, trans. Paul T. Fuhrma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9), p. 69.

90) Inst. IV. xvi. 24.

91) *Ibid.*

92) *Ibid.*, IV. xv. 22.

93) John Calvin, “Adultero-German Interim, with Calvin’s Refutation and the True Method of Reforming the Church and Healing her Divisions,” in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ed. and trans.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Vol. 3, Tracts, Part 3, p. 275.
94) Inst. IV. xvi. 10~30.

95) Inst. IV. xvi. 6. cf. Calvin, “Form of Administering Baptism,” p. 115; and “Second Defence of the Pious and Orthodox Faith Concerning the Sacraments, in answer to the Calumnies of Joachim Westphal,” in *Selected Works*, Vol. 3, Tracts, Part 3, p. 338.

96) Inst. IV. xvi. 4, 7.

97) Calvin, “Letter DXLIX. - To John Knox (1559),” in *Selected Works*, Vol. 7, Letters, Part 4, p. 74.

98) *Ibid.*

을 것이라고 생각해보는 것은 합리적이다. 따라서 유아 세례는 “단지 반 정도의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을 완전하게 만드는 공식적인 양자 삼음에 우선해야 하는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후에 세례에 의해 재가되는 것이다.⁹⁹⁾ 세례는 “이전에 참여했던 자들의 구원을 인치는 것”¹⁰⁰⁾으로 칼빈은 이해했다. 칼빈에게 있어서 세례는 어린이를 위해서든, 장년을 위해서든, 항상 용서와 중생을 의미했다.¹⁰¹⁾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세례 받은 모든 어린이가 자동적으로 온전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다고 잘못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언약도, 그 징표도, 성례도, 칼빈은 자동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칼빈은 마치 세례 받은 어린이가 세례 그 자체로 통해서 중생하는 것처럼 말하는 로마 카톨릭의 성례 은총 이론을 반대했다.¹⁰²⁾ 그는 세례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했지만, 그것의 효과를 어떤 기적적이거나 마법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했다. 그러나 같은 강도로, 그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선함이나 선한 경향이 있다는 모든 개념들을 강력히 거부했다.¹⁰³⁾ 인간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존재인데, 칼빈은 이 본성을 하나님에 관한 순수한 교리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성향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은총과 떨어져서는 어떤 양육도 선을 이루는 데 성공할 수 없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성례도 이 은총을 의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어떤 교육적 커리

99) Calvin, “Adultero-German Interim,” in *Selected Works*, Vol. 3, Tracts, Part 3, p. 275.

100) Calvin, “Second Defence of the Sacrament,” in *Selected Works*, Vol. 2, Tracts, Part 2, p. 319.

101) T. F. Torrance, *The School of Faith* (London: James Clarke & Co., 1959), p. 57.

102) Inst. IV. xv. 4.

103) *Ibid*, IV. xv. 10.

쿨럼이나 방법론도 이것을 부여할 수 없고,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로 없는 선물이라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 구원의 도구인 말씀을 사용하는 성령은 신속히 변화시키는 힘을 불어넣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이 이르면, 누구도 성령의 실재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언약의 실현을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¹⁰⁴⁾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더욱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로서 그의 백성을 표시하셨다고 칼빈은 말한다. 세례는 항상, “우리가 교회의 교제 안에 들어가도록 인정받는 것, 즉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린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지는 첫 징표”¹⁰⁵⁾로서의 귀중한 명예가 유지되어야 한다.

칼빈은 특히 세르베투스(Servetus)의 잘못을 다루면서 재세례파들에 대해서 응답하는 가운데, 어린이들을 양육시키는 수단으로서 세례가 가지는 실질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약술했다.¹⁰⁶⁾

모든 힘을 다해 유아세례를 공격하려는 사단의 계획은 언약을 통해 우리 눈에 직접 계시된 하나님의 은총의 확증을 멸시하고, 점차적으로 마멸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불경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할 줄 모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를 경건하게 훈련시키는 데도 소홀히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의 율법을 지키도록 양육하는 것은 결코 미비한 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고의로 하나님의 자비를 가릴 수 없다면, 그의 친구며 가족인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우리의 자녀를 내어놓자.¹⁰⁷⁾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으로 확증하시는 상징으로서의 세

104) *Ibid*, IV. xiv. 9~11.

105) *Ibid*, IV. xv. 1.

106) *Ibid*, IV. xvi. 31.

107) *Ibid*, IV. xvi. 32.

례는 그의 뜻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기초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칼빈은 특히 그의 주석에서 끊임없이 이를 강조하고 있다. 창세기 17장에 대한 주석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인 그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목적이, 자신의 백성으로 부른 사람들을 경건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는 진실로 아무 대가 없는 언약이다.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입기 위해 자신들을 온전히 바쳐야 한다고 말한다.¹⁰⁸⁾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훌륭한 가장의 직책과 자신의 가족을 교육하는 데 충실히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중보자로 허락 받았다는 것을 간략히 보이고 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로 알게 하시는 뜻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후손들에게 그분의 증거가 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 받은 지식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 전수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녀들과 나눴던 말씀에 대해 자신들을 부지런히 적용시키는 것이 부모들의 의무이다.¹⁰⁹⁾

그 당시 제네바에서는 이런 소명에 대한 부모들의 안일함이 아주 심각한 지경이었는데, 이 진술은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한 경고인 셈이다.¹¹⁰⁾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하나님의 교훈을 전달하지 않고 그

108) Commentary on Genesis 17:1.

109) Commentary on Genesis 18:19.

110) 벌트(van der Walt)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교회가 교리문답을 편찬하여,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라고 심하게 훈계할 정도로,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 교육에 소홀히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긴급 대책으로 교회는 신앙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방기(放棄)를 대신할 것으로 교회 학교를 지어야 했다. 학교 시간의 약 4분의 1이 부모들의 불충분한 자녀양육의 의무 이행을 예우기 위해서 신앙 문제에 할애되

것의 “생명을 조이는” 사람들에게서, “이전에 말씀하신 보배를 거두어서, 세상의 나태를 벌하실 것”¹¹¹⁾이라고 주장했다. 참된 가르침을 생각할 때, 그는 항상 성경의 훈계를 끊임없이 인용하고 있다.

멸시와 무기력만큼 믿음과 반대되는 것은 없다. 반면, 교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처해서, 고통받고 죽어가던 그들이 절박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도록 하게 한다.¹¹²⁾

그러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였던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받은 교육을 통해서 참 신앙을 얻는다고 할 때, 그들에게 어떤 명예가 덧붙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자신들의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하신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거나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원인이 아니라, 결과를 지시하는 것은 성경의 통상적인 표현 방법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고 완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약속하신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¹¹³⁾

그런데 만일 세례를 받은 이 중의 몇 사람이 믿음과 영원한 삶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손상되고, 교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일까? 칼빈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직면하게 됨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에 확실히 보여주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에만 그러하다고 보았다.¹¹⁴⁾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언약적 관계

었다.” “The School,” p. 315.

111) Commentary on Genesis 18:19.

112) *Ibid.*

113) *Ibid.*

에 대해 이중의 방법으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것은 언약이 갖고 있는 은총의 요소를 손상시킬 수 없이 개인들로 하여금 자기 반성을하도록 고무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¹¹⁵⁾ 그는 계속해서 창세기 17장을 마태복음 8:12, 갈라디아서 2:15,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9:8과 비교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회에 두 부류의 아들들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전체 백성들은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에 의해 하나님의 교회로 모두 모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녀로 여겨진다. 교회의 이름은 그들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가장 깊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믿음에 의해 언약이 확증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이러한 분별이 대가 없는 선택의 기초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믿음은 또한 생겨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보자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신앙과 불신앙의 표시에 의해 거짓 자녀들과 참 자녀들을 구분한다.¹¹⁶⁾

이상에서 언급된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왜 칼빈이 교회와 가정에 의한 자녀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칼빈은 그 당시의 실제 상황에서 행해져야 했던 교육목회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제네바에는 세례를 받고 어느 정

114) Commentary on Acts 3:25. 칼빈은 “새롭게 됨에 따라 신앙의 자녀들이 된 많은 사람들이 벗나가서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해 신령한 자손들 가운데서 그들 스스로 떠나갔기 때문이다”라고 주석하고 있다.

115) Commentary on John 13:22. 칼빈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경한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불편한 심정을 느끼고, 자신을 엄밀히 살펴서, 위선으로부터 마땅히 자신을 지키게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삶을 반성할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라고 주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Commentary on I Corinthians 11:26~9에서는 이러한 자기 반성이 어떻게 행해지는가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116) Commentary on Genesis 17:7.

도 정규적으로 신령한 예배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있었다. 그는 복음에 모욕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알고 있었지만,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위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또한, 이렇게 그는 세례 받은 자녀들은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의 언약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다. 그는 “신앙과 불신앙의 저마다의 증거” 외에 다른 어떤 구분을 하려고도 또는 해서도 안 된다고 느꼈다. 자녀들이 아직 “분별 연령(the years of discretion)”(칼빈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표현)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해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 분별 연령이란 복음의 살아있는 설교와 가르침 아래에서는 누구도 개인적인 대답과 상관없이 의존할 수 있는 고정된 특권은 아니었다. 항상 회개와 믿음의 요구가 선포되었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만 어린아이와 어른들은 자신들이 주님에게 진실로 속해있다는 확신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¹¹⁷⁾ 따라서 교리문답은 결코 하나님과 그의 위대한 일에 대한 단순한 정보를 나눠주는 것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리문답 교육은 목사와 교사 그리고 부모들이 가르쳤던 일을 통해 직접적이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언약의 하나님에게 응답함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부름이었다. 이 가르침이 성령의 은총에 의존하는 가운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칼빈은 몇 년을 거쳐서 교회를 굳게 세우는 신령한 세대들이 자라날 것이라고 믿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은 교리문답 교사, 즉, 목사와 교사 그리고 부모들에게 도전을 주었다.¹¹⁸⁾

교회와 가정의 상호관계를 본다면, 가정은 자녀들의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먼저, 언약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 즉 아브라함과

117) Peter Y. DeJohn, “Calvin’s Contributions to Christian Education,” *Calvin Theological Journal* 2(1967): 193.

118) Ibid.

그 자녀들에게 주어졌고, 그 가족 관계를 통해 이어진다고 보았다.¹¹⁹⁾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1차적인 책임이 있었다. 칼빈은 교회에 명백한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후견인이 부모를 대신 할 수 있다고 하였다.¹²⁰⁾ 그러나 그 후견인들조차도 이상적으로는 자녀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 슬며시 퍼져갔던 이런 악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로 잡아졌고,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강하게 권고하게 되었고, 첫째 후견인들이 되어갔다.¹²¹⁾

한 마디로 말해서 언약의 가족은 하나님의 더 큰 언약인 교회를 이루도록 자녀들을 준비시켰다.¹²²⁾

7. 결론

16세기 개혁 교회의 모델로서 칼빈의 제네바 교회는 순전한 교리를 배우는 학교로서 그 정체성을 갖고 세계 역사상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는 개혁 교회로서 새 제네바 교회를 세우려고 “규례,” “신앙고백,” “교리문답” 그리고 “교회법령”과 같은 문서들을 의욕적으로 제안함으로서 개혁 교회의 조직과 교리 그리고 원정의 기초를 세우려고 대단한 노력을 경주했다.

디모데 조지(Timothy George)가 바로 결론짓고 있는 바대로, “제네바 교회는 결코 졸업하는 사람이 없는 학교였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이었다. 가장 정확한 의미로서의 교회는 ‘개혁 학교

(reform school)’로서, 특수한 의복 양식, 문건 검열, 채플 참석 강제, 반항 학생 단속담당자로 갖추어져 있는 학교였다.”¹²³⁾

제네바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칼빈의 실천 신학적 노력의 결과였다. 신학자로 칼빈은 자신의 신학을 이론으로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제네바 교회라는 목회 현장에다 실제화시키려고 했던 목회자였다. 그의 신학적 야망은 그의 말년에 꽃을 피고 열매를 거두었다. 한 마디로 칼빈에게는 신학 이론과 목회 실체가 서로 유리되지 않았다. 신학과 경건이 그의 목회 사역 속에서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조화를 이루었다.

오늘의 개혁교회가 이상에서 언급된 칼빈의 개혁신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이 교회들은 칼빈이 자신의 신학을 제네바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여 열매를 거두었는가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지금도 매우 유용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당시의 제네바 교회와 비교하여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든가 교회의 대(對) 사회적 책임문제 또는 교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의 삼각관계에 있어서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에 관한 문제는 칼빈의 영적 후손들이 오늘의 개혁교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이다.(*)

119) Commentary on Genesis 17:7.

120) Arie R. Brouwer, “Calvin’s Doctrine of Children in the Covenant: Foundation for Christian Education,” *The Reformed Review* 18(1964): 27.

121) Calvin, “Letter DXLIX. - To John Knox(1599),” in *Selected Works*, Vol. 7, Letters, Part 4, p. 75.

122) Brouwer, “Calvin’s Doctrine,” p. 28.

123) Timothy George, “The Church as Congregation,” in *Calvin Studies II presented at a Colloquium on Calvin Studies at Davidson College*, Eds. John H. Beith and Charles Raynal (Davidson, NC : Davidson College, 1984), p. 12.